

# 미혼모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

이경미<sup>1</sup> · 고효정<sup>2</sup> · 김혜영<sup>3</sup>

영남대학교의료원 분만실<sup>1</sup>, 계명대학교 간호대학<sup>2</sup>, 가톨릭상지대학교 간호학과<sup>3</sup>

## Unmarried Mother'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Lee, Gyeong Mi<sup>1</sup> · Koh, Hyo Jung<sup>2</sup> · Kim, Hye Young<sup>3</sup>

<sup>1</sup>Delivery room, Yeungnam University Medical Center, Daegu

<sup>2</sup>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Daegu

<sup>3</sup>Department of Nursing, Catholic Sangji College, Andong,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relationships among knowledge and attitudes of unmarried mothers toward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tructured questionnaires from 135 unmarried mothers enrolled in 7 single mothers' facilities nationwid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WIN 17.0 program for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e-test,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Results:** For knowledge about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who live with her before pregnancy, experience of past pregnancies, state of present pregnancy and preparation in using contraceptives. For attitude toward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age, education level and religion.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unmarried women should be better informed about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and reassured about their safety. Efforts are needed to disseminate up-to-date information to experts in sex education including nurses.

**Key Words:** Unmarried mother, Contraception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 사회는 개방적인 서구식 성문화와 인터넷이나 대중매체를 통한 성 자극 매체의 증가 및 성 상품화의 영향 등으로 청소년들의 성경험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또한, 이들의 계획하지 않은 임신과 낮은 피임 실천으로 말미암은 미혼모의

증가는 사회적, 의학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Jeong, Kim, & Yang, 2004; Lee, Lee, Lee, & Lim, 2008). 우리나라는 아직 미혼모 출산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으나, 국내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의 수는 1996년 1,028명, 2000년 1,273명, 2004년 1,620명, 2010년 2,12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1).

대부분의 미혼모 경우 한 번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임신인 경우가 많으며, 미혼모의 나이가 많

**주요어:** 미혼모, 피임

**Corresponding author:** Kim, Hye Young

Department of Nursing, Catholic Sangji College, 45 Sangji-gil, Andong 760-711, Korea.  
Tel: +82-, Fax: +82-54-853-3260, E-mail: hye268@csj.ac.kr

- 이 논문은 제1저자 이경미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이다.

- This article is a revision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Keimyung University.

**투고일:** 2013년 3월 5일 / **수정일:** 2013년 5월 31일 / **게재확정일:** 2013년 6월 5일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아질수록 임신경험 횟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현재 임신 이전의 임신 결과는 대부분이 인공 임신중절이었다(Lee, 2006). 미혼모의 임신 원인은 피임을 하지 않았거나 실패한 경우가 82%로 가장 많았으며, 미혼모의 28.6%가 미혼 상태에서 이미 출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미혼모들의 책임, 출산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05). 미혼모의 임신지속은 대체로 인공 임신중절시기를 놓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수술 비용이 없어서 또는 아이에 대한 애착 때문에 출산을 결정하기도 한다(Kim, 2009). 하지만 이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인공 임신중절은 의학적, 사회적, 윤리적, 종교적으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모체사망의 위험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Jeong, 2005).

따라서 미혼모의 원하지 않는 임신을 줄이기 위해서는 피임교육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피임방법에는 사전피임법인 경구피임약, 임플란트, 자궁 내 장치, 콘돔, 질외사정, 월경주기 조절법 등이 있으며, 사후 피임법으로는 응급피임약과 구리 자궁 내 장치가 있다(Korean Society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2007). 일차적으로 사전에 효과적인 피임법을 사용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차적 예방책으로 응급피임법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여 인공 임신중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Lee, 2002; Park & Han, 2002).

응급피임약은 응급피임법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체내 호르몬 농도를 높여 배란을 억제시키거나 자궁내막의 호르몬 수용체를 억제시켜 자궁내막의 변형을 초래함으로써 착상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2002). 현재 응급피임약은 유럽이나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한 것에 반해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 처방 하에 시판되고 있다. 응급피임약은 경구 피임약에 비해 호르몬 용량이 10배 정도 높으므로, 반복 사용할 경우 신체적 부담이 크고, 효과도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사후 피임법 중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필요시 응급피임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Kang, 2009; Lee, 2002).

Kang (2006)의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응급피임약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미혼여성들이 응급피임약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미혼여성들은 응급피임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 원하고 있었다. Lee (2006)의 연구에서는 미혼모들이 응급피임약을 월경주기법 다음으로 가장 교육받고 싶어 하는 피임법으로 나타났다.

최근까지 응급피임약에 대한 국내 연구는 응급피임약의 작용기전이나 효과 및 안전성에 관련된 의학적 연구(Lee, 2002; Park, 2000b)와 미혼여성, 보건교사, 여고생 대상으로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 장애요인 등(Kang, 2006, 2008, 2009)에 관한 연구가 있었으며, 아직까지 다양한 연구대상이나 방법으로 연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혼모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 정도를 확인하고,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미혼모의 원하지 않는 책임신을 예방하는 성교육 및 피임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미혼모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 정도와 태도를 알아보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미혼모를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산과적 특성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산과적 특성에 따른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알아보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서울, 광주, 부산, 대구, 경북 지역의 7개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인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는 연구목적과 비밀 보장, 연구참여로서의 권리를 설명한 후 자발적 동의가 있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편의 표출하였다.

G\*Power 3.1.3을 이용한 연구대상자 수는 유의수준( $\alpha$ ) .05, 검정력(Power) .80, 효과크기  $r=.25$ 일 때 필요한 표본 수는 123명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135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 3. 자료수집

연구시작 전 본 연구자의 소속기관인 D시의 Y대학교 임상연구윤리위원회의 연구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PCR-11-114).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8월 4일부터 2011년 9월 30일이다.

자료수집을 위해 전국 32개 미혼모 시설 중에 본 연구자가 기관장에게 전화로 연구의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한 후 연구참여에 협조하기로 한 7개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대상자에게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 취지, 비밀보장, 연구참여 거부권리, 설문지 기재요령을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대상자가 설문지를 자가 기입하여 설문지를 마무리하면 연구자가 즉시 회수하였다. 자료수집 장소는 해당시설 교육장에서 하였으며 설문지 소요시간은 약 15~20분이었다. 총 1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그 중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한 설문지 15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35부의 설문지로 분석하였다.

### 4. 측정도구

#### 1)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

본 연구에서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은 Kang과 Moneyham (2008)이 개발한 응급피임약 지식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12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맞다, 틀리다, 모름’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맞으면 1점, 틀리거나 모름은 0점 처리하여 0에서 12점의 점수 범위를 가진다. 점수가 높을수록 응급피임약 사용에 대한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KR 20은 .7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KR 20은 .85였다.

#### 2) 응급피임약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 응급피임약에 대한 태도는 Kang (2007)이 개발한 응급피임약에 태도 척도를 이용하였다. 총 12문항 5점 척도이며, 태도의 하부영역은 남용의 두려움, 건강염려, 구입의 용이성으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은 ‘매우 그렇다’(5점),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

지 않다’(1점)로 측정되며, 점수는 12점에서 60점의 점수범위를 가진다. 남용의 두려움과 건강염려 영역의 문항들은 부정 문항으로 역 코딩하여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급피임약 사용에 대해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78$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77이었다.

###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7.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응급피임약의 지식과 태도는 실수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산과적 특성에 따른 응급피임약의 지식과 태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 검정은 Scheffé test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 연구결과

### 1. 대상자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은 15~19세가 62명(45.9%)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령이 21.9세였다. 대상자의 학력은 고졸이 77명(57.0%)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신 전 동거 가족은 부모가 75명(55.6%)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는 무교가 70명(51.9%)으로 많았으며, 미혼모 시설 퇴소 후 아동 양육 계획은 입양이 69명(51.1%)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 2. 대상자 산과적 특성

대상자의 산과적 특성에서 현재 임신 중인 경우가 71명(52.6%)으로 출산 후 몸조리하고 있는 경우보다 많았다. 과거 임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8명(35.6%), 인공 유산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35명(25.9%), 분만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20명(14.8%)이었다.

첫 성관계 연령은 16~19세가 88명(65.2%)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18.0세였다. 성관계시 피임 준비에 대해서는 ‘때때로 한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81명(60.0%)이었으며, ‘전혀 하지 않는다’가 44명(32.6%), ‘항상 준비한다’가 10명(7.4%)이었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3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Age (year)		21.9±5.34
	15~19	62 (45.9)
	20~24	41 (30.4)
	25~29	12 (8.9)
	≥30	20 (14.8)
Education	≤Middle school	22 (16.2)
	High school	77 (57.0)
	≥College	36 (26.8)
Lodger before pregnancy	Parents	75 (55.6)
	Alone	28 (20.7)
	Friends	24 (17.8)
	Siblings	8 (5.9)
Religion	Yes	65 (48.1)
	No	70 (51.9)
Plan of fostering	Adoption	69 (51.1)
	Rearing	42 (31.1)
	No decision	24 (17.8)

**Table 2.** Obstetr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3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States of pregnancy now	Pregnant	71 (52.6)
	Delivered	64 (47.4)
Experience of past pregnancy	Yes	48 (35.6)
	No	87 (64.4)
Experience of artificial abortion	Yes	35 (25.9)
	No	100 (74.1)
Experience of past delivery	Yes	20 (14.8)
	No	115 (85.2)
Age of first sex intercourse (year)		18.0±2.50
	≤15	18 (13.3)
	16~19	88 (65.2)
	≥20	29 (21.5)
Frequency of using contraceptive methods	Not at all	44 (32.6)
	Occasionally	81 (60.0)
	Always	10 (7.4)

### 3. 대상자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

대상자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 정도를 확인한 결과, 지식 수준은 4.76점, 태도 정도는 3.55점이었다(Table 3).

### 4. 대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피임약 지식과 태도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 차이

를 확인한 결과, 임신 전 동거인( $F=3.04, p=.03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신 전에 동거인 없이 혼자였던 경우 또는 친구와 동거하였던 경우가 형제와 함께 동거했던 경우보다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 정도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피임약에 대한 태도 차이를 파악한 결과, 연령( $F=3.62, p=.015$ ), 학력( $F=3.13, p=.047$ )과 종교( $t=2.39, p=.018$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25~29세의 대상자가 15~19세, 20~24세 대상자보다 응급피임약에 대한 태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대상자가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대상자보다 응급피임약에 대한 태도가 높았으며, 종교를 가진 대상자보다 종교가 없는 대상자보다 응급피임약에 대한 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Table 4).

### 5. 대상자 산과적 특성에 따른 응급피임약 지식과 태도 차이

대상자의 산과적 특성에 따른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 차이를 파악한 결과, 현재 임신상태( $t=-3.46, p=.001$ ), 과거 임신경험( $t=-2.02, p=.044$ ), 성관계 시 피임 준비( $F=10.19, p<.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임신 상태에서는 출산하고 몸조리 중인 대상자가 임신 중인 대상자보다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이 더 높았으며, 과거 임신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과거 임신경험이 없는 대상자보다 지식 정도가 더 높았다. 성관계시 피임 준비를 ‘때때로 하는’ 대상자가 ‘전혀 하지 않는’ 대상자에 비해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이 더 높았다(Table 5). 대상자의 산과적 특성에 따른 응급피임약에 대한 태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6. 대상자 응급피임약 지식과 태도간의 상관관계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r=.27, p=.001$ )를 보였다. 응급피임약에 대한 태도의 하부 영역과 지식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응급피임약에 대한 태도 중 남용 두려움( $r=.29, p=.001$ )과 구입 용이성( $r=.24, p=.004$ )은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6).

## 논 의

본 연구는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의 일반적 특성과 산과적

**Table 3.**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ECP

(N=135)

Variables	M±SD	Skewness	Kurtosis	Max	Min
Knowledge	4.76±0.42	.01	-1.20	12.0	0
Attitude	3.55±0.44	.18	-0.27	5.0	1

ECP=emergency contraceptive pill.

**Table 4.** Comparison of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ECP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35)

Characteristics	Categories	Knowledge		Attitude	
		M±SD	F or t (p)	M±SD	F or t (p)
Age (year)	15~19 <sup>a</sup>	4.06±0.39	1.98 (.120)	2.60±0.42	3.62 (.015) a, b > c
	20~24 <sup>b</sup>	5.51±0.52		2.62±0.42	
	25~29 <sup>c</sup>	5.67±0.23		2.20±0.40	
	≥30 <sup>d</sup>	4.80±0.87		2.45±0.43	
Education	≤ Middle school <sup>a</sup>	4.09±0.66	1.06 (.349)	2.68±0.39	3.13 (.047) a > c
	High school <sup>b</sup>	4.68±0.39		2.58±0.45	
	≥ College <sup>c</sup>	5.33±0.52		2.40±0.40	
Who living with before pregnancy	Parents <sup>a</sup>	4.33±0.39	3.04 (.031) b, c > d	2.55±0.44	2.66 (.052)
	Alone <sup>b</sup>	5.36±0.59		2.54±0.46	
	Friends <sup>c</sup>	6.04±0.59		2.66±0.58	
	Siblings <sup>d</sup>	2.75±1.11		2.16±0.28	
Religion	Yes	4.20±0.49	1.90 (.059)	2.64±0.45	2.39 (.018)
	No	5.27±0.37		2.46±0.40	
Plan of fostering	Adoption	4.94±0.39	2.77 (.066)	2.52±0.43	0.32 (.725)
	Rearing	5.38±0.54		2.58±0.41	
	No decision	3.13±0.53		2.48±0.50	

ECP=emergency contraceptive pill.

**Table 5.** Comparison of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ECP† by Obstetrical Characteristics

(N=135)

Characteristics	Categories	Knowledge		Attitude	
		M±SD	F or t (p)	M±SD	F or t (p)
Experience of past pregnancy	Yes	5.52±0.50	-2.02 (.044)	2.60±0.42	-1.03 (.304)
	No	4.33±0.34		2.52±0.44	
States of pregnancy now	Pregnant	3.86±0.36	3.46 (.001)	2.49±0.47	-1.50 (.136)
	Delivered	5.75±0.42		2.60±0.39	
Experience of artificial abortion	Yes	4.43±0.32	1.96 (.052)	2.60±0.37	-1.02 (.308)
	No	5.69±0.56		2.52±0.45	
Experience of past delivery	Yes	5.58±0.93	-1.13 (.260)	2.62±0.51	-0.78 (.434)
	No	4.67±0.29		2.54±0.42	
Age of first sex intercourse (year)	≤ 15	4.83±0.72	0.01 (.994)	2.75±0.40	2.65 (.074)
	16~19	4.75±0.35		2.54±0.42	
	≥ 20	4.72±0.65		2.45±0.47	
Preparation of using contraceptives	Not at all <sup>a</sup>	3.14±0.47	10.19 ( $< .001$ ) b > a	2.60±0.48	1.06 (.347)
	Occasionally <sup>b</sup>	5.72±0.34		2.53±0.41	
	Always <sup>c</sup>	4.10±0.94		2.39±0.43	

ECP=emergency contraceptive pill.

**Table 6.** Relationships between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ECP (N=135)

Variables	Subcategories	Knowledge	
		r	p
Attitude	Fear of abuse	.29	.001
	Easiness purchasing	.24	.001
	Anxiety of health	-.05	.510
Total		.27	.001

ECP=emergency contraceptive pill.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 특성에 따른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차이 및 상관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미혼모 대상의 성교육 및 피임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대상자의 45.9%가 19세 이하였으며, 교육수준은 73.2%가 고졸 이하이었다. 대상자의 산과적 특징에서는 과거 임신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35.6%, 과거 출산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14.8%, 인공유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가 25.9%이었으며, 첫 성관계를 한 연령은 평균 18세이었다. 또한, 평소 피임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32.6%였다. 이러한 결과는 Lee (2006) 연구에서 미혼모의 첫 성관계 연령은 18.3세이었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Lee와 Park (2008) 연구와 Kim (2009) 연구에서 대다수 미혼모들이 10대에 첫 성경험을 하였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Lee (2006) 연구대상자의 미혼모 중 과거 임신경험이 있는 경우가 44.5%, 인공 임신중절 경험은 33.6%, 과거 출산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8.5%이었으며, Jeong 등(2004)의 연구의 미혼모에서도 과거 임신 경험이 있는 경우가 40.6%, 유산 경험은 28.1%, 분만 경험은 15.5%인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미혼모들의 상당수가 재임신과 출산경험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미혼모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수준은 평균 4.76점이었으며, 태도는 3.56점이었다. 이는 같은 도구를 이용한 여고생 대상의 Kang (2009)의 연구에서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정도가 4.74와 비교하면 유사한 수준이지만, 비슷한 연령대의 여대생 대상에서 5.03점이었으며(Kang & Moneyham, 2008), 보건교사 대상에서 8.52점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Kang, 2008).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대상자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태도는 3.55점이었다. 역시 같은 도구를 이용한 선행연구에서는 여고생(Kang, 2009), 여대생(Kang & Moneyham, 2008), 보건교사(Kang, 2008) 모두 평균 2.60점 수준으로 본 연구대상자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즉, 이러한 결과는 미혼모의 응급피임약 사용에 대한 태도는 미혼모가

아닌 일반인에 비해 수용적이고 긍정적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미혼모의 특성에 따른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 정도를 살펴보면, 대상자들이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친구와 동거하거나 동거인 없이 혼자였던 대상자가 형제자매들과 동거했던 대상자보다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 정도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 이미 성경험에 노출된 미혼모들은 스스로 피임 방법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찾아보거나, 혹은 비슷한 또래의 친구에게서 피임 정보를 얻은 결과로 판단된다. 하지만 시설 입소 전까지 형제자매와 동거한 경우는 혼전 성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피임에 대해 또래 가족구성원들과 정보를 나누거나 정보 검색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Hur 등(2007)의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도 임신이나 낙태를 결정할 때 의논 상대로는 성교상대자 혹은 그 다음이 친구나 또래 선후배였으며, 형제자매에게서 정보를 얻거나 의논한 경우는 가장 낮았다.

본 연구결과에서 현재 출산하고 몸조리 중인 대상자가 임신 중인 대상자보다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이 더 높았으며, 과거 임신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과거 임신경험이 없는 대상자보다 지식 정도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수준은 대상자의 임신, 출산경험과 연관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자신의 임신이나 출산경험을 통해 응급피임약에 대한 관심 증가에 의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Kang, Song과 Lim (2005)의 연구에서 성경험이 있는 여대생이 성경험이 없는 여대생보다 피임에 대한 지식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Hur 등(2007)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성경험 횟수가 많을수록 피임지식이 높았다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성관계시 피임 준비를 ‘때때로 하는’ 대상자가 ‘전혀 하지 않는’ 대상자에 비해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 정도가 더 높았는데, 이는 Jeong 등(2004) 연구에서 미혼모 대상자의 84.4%가 임신하게 된 이유는 교제 중 피임법을 모르거나 피임에 실패하여 임신을 하였다고 응답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미혼모의 상당수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피임 교육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 미혼모의 특성에 따른 응급피임약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연령과 학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4세 이하의 대상자들이 25~29세 대상자보다 응급피임약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으며, 중졸 이하인 대상자가 대졸 이상인 대상자보다 응급피임약에 대한 태도는 유의하게 더 긍정적이었다. 즉, 대상자의 연령과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응급피임약 사용에 대해 더 수용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10대와 20대 초반 대상자의 경우 향후 이들의 반복적인

원치 않는 재임신을 예방하는 수단으로 응급피임약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미혼모의 첫 성경험 시기가 10대이며, 학력이 고졸 이하가 70% 이상인 점을 감안한다면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이나 피임교육에서 응급피임약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응급피임약에 대한 교육은 응급피임약의 안전성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작용기전, 부작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포함되어 응급피임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Calabretto, 2009; Miller, 2011; Rocca et al., 2007). 본 연구결과에서 종교가 있는 경우가 종교가 없는 경우보다 응급피임약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종교를 가진 대상자가 응급피임약 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결과는, Lim과 Cho (2002)의 연구에서 종교가 있는 대학생이 종교가 없는 집단에 비해 경구 피임약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인 결과와 일맥한다. 하지만 Park (2000a)은 미혼모의 발생이나 미혼모의 양육 결정과정은 종교와는 무관하며, 오히려 개인심리적 요인, 입양과 양육에 대한 가족과 사회문화적 가치와 관련성이 높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미혼모 대상 선행연구에서는 종교에 따른 피임이나 성 관련 변수를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우리나라 문화권에서의 미혼모 문제를 재조명해보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응급피임약 사용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응급피임약의 지식과 태도의 하부영역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남용의 두려움과 구입의 용이성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왔다. 이는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응급피임약에 대한 남용의 두려움과 구입의 용이성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Kang (2009) 연구에서는 응급피임약에 대한 태도와 사용의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응급피임약에 태도와 지식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가임기 연령 대상으로 한 연구(Jeong, 2005)에서는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응급피임약 사용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응급피임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하면 응급피임약 사용을 주저하거나 잘못 사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응급피임약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가임 여성들이 필요시 응급피임약 사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응급피임약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Brunton & Beal, 2006; Calabretto, 2009; Kang, 2009), 교육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및 관련기관에서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규정하며 통제를 주장하는 주된 이유는 약물의 남용 및 무분별한 성행위 증가 우려 때문이지만,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는 응급피임약은 사전 피임에 실패했을 때 대안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평소의 피임사용을 방해하지 않았다(Calabretto, 2009; Miller, 2011; Rocca et al., 2007). 우리나라의 경우 인공유산율이 청소년 및 대학생 연령층에서 매우 높은 편이며, 첫 성교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Kang, 2009). 따라서 의도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효과적인 피임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지만, 응급피임약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므로(Lee, 2002) 필요시 응급피임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또한 중요하다. Lee (2002) 연구에 의하면 가임 여성의 인공 임신중절로 이어진 임신 중 피임을 하지 않은 경우가 61%, 피임 실패에 의한 경우가 38%였다. 따라서 응급피임법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여 인공 임신중절 수술과 그로 인한 합병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혼모는 임신과 피임 등 전반적 성지식이 부족하고 성 활동을 하면서도 피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효율적인 피임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는데(Jeong et al., 2004), 미혼모는 가정이나 학교가 아닌 주로 동료 친구들을 통해서 잘못된 성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Goyal, Zhao, & Mollen, 2009; Hickey, 2009; Larsson, Eurenus, Westerling, & Tyden, 2006). 따라서 미혼모 대상의 성교육과 피임교육은 이러한 미혼모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 피임방법뿐만 아니라 사후 응급피임약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혼모의 혼전 재임신과 인공 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 활동이 시작되거나 시작되기 직전인 청소년 대상의 성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하며,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피임교육의 하나로 응급피임약에 대한 올바른 사용을 위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성교육과 마찬가지로 응급피임 정보에 대한 중요정보처가 주변 친구나 대중매체가 아닌 올바른 성교육을 전달시켜줄 수 있는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바람직할 것이다.

## 결론

본 연구는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과 태도 알아보고 이들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전국(서울, 대구, 부산, 광주, 경북) 7개의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13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

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은 임신 전 동거인, 과거 임신 경험 유무, 현재 임신 상태 및 성관계시 피임 준비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응급 피임약에 대한 지식 정도는 주로 대상자의 산과적인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본인의 임신이나 출산 경험, 이번 임신 전에 함께 살았던 사람 등에 따라 지식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반면에 응급피임약에 대한 태도는 연령, 학력, 종교유무 등 산과적인 특성보다는 인구학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이들 두 변수 간에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응급피임약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많으면 응급피임약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의미이다.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피임 교육 프로그램 또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킴으로써 필요한 시기에 응급피임약을 적절히 활용하여 미혼모의 재임신 예방 및 임신중절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응급피임약은 가장 최근에 나온 사후 피임법이지만 여전히 문화적, 사회적 인식의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 보건교사 또는 일반 성인, 청소년 등 다양한 대상자에서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태도, 지식에 관한 조사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Brunton, J., & Beal, M. W. (2006). Current issues in emergency contraception: An overview for providers. *Journal of Midwifery and Women's Health, 51*, 457-463.
- Calabretto, H. (2009). Emergency contraception-knowledge and attitudes in a group of Australian university students. *Australian and Newzealand Journal of Public Health, 33*, 234-239. <http://dx.doi.org/10.1111/j.1753-6405.2009.00381.x>
- Goyal, M., Zhao, H., & Mollen, C. (2009). Exploring emergency contraception knowledge, prescription practices, and barriers to prescription for adolescents in the emergency department. *Pediatrics, 123*, 765-770. <http://dx.doi.org/10.1542/peds.2008-0193>
- Hickey, M. T. (2009). Female college students' knowledge, perceptions, and use of emergency contraception.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and Neonatal Nursing, 38*, 399-405. <http://dx.doi.org/10.1111/j.1552-6909.2009.01035.x>
- Hur, M. H., Ahn, H. Y., Kwak, E. A., Kim, K. M., Park, J. Y., & Lee, J. I. (2007). A Study on sexual behavior, and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of contraception and attitude of contracep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 267-275.
- Jeong, G. H., Kim, S. J., & Yang, S. O. (2004).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exual health education program for unmarried mother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0*, 252-260.
- Jeong, S. E. (2005).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emergency contraceptive of young woman. *The Newest Medical Journal, 48*, 107-114.
- Kang, H. S. (2006). Perceptions of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among young Korean wom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2*, 124-131.
- Kang, H. S. (2007). Development of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knowledge and attitude scale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9*, 1153-1163.
- Kang, H. S. (2008).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of high school health teacher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0*, 713-725.
- Kang, H. S. (2009).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Knowledge, attitude, and intention of high school girls in Korea.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5*, 336-343. <http://dx.doi.org/10.4069/kjwhn.2009.15.4.336>
- Kang, H. S., & Moneyham, L. (2008). Use of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and condoms by college students: A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5*, 775-783. <http://dx.doi.org/10.1016/j.ijnurstu.2007.01.008>
- Kang, S. E., Song, E. J., & Lim, E. J. (2005). Difference in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between high school and college girl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17*, 753-761.
- Kim, E. H. (2009). *A study on the welfare policy for unmarried mot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sung University, Seoul.
- Korean Society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2007). *Gynecology* (4th ed.). Seoul: Corea Medical Books.
- Larsson, M., Eurenus, K., Westerling, R., & Tyden, T. (2006). Evaluation of a sexual education intervention among Swedish high school students.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Health, 34*, 124-131.
- Lee, B. R., Lee, M. K., Lee, C. K., & Lim, S. C. (2008). Evaluation of use of emergency contraceptives in unmarried female Korean. *Journal of Pharmacy Science, 23*, 83-89.
- Lee, E. J. (2006). *Comparative study on knowledge of contraception between single and married moth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llym University, Chuncheon.
- Lee, M. S., & Park, J. H. (2008). A case study on the experience of teenaged unmarried mothers deciding adoption.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3*, 187-205.
- Lee, S. H. (2002). Emergency contraception.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23*, 706-714.
- Lim, H. J., & Cho, Y. H. (2002). A study on knowledge and atti-



- tude about oral contraceptives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6, 412-422.
- Miller, L. M. (2011). College student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emergency contraception. *Contraception*, 83, 68-73. <http://dx.doi.org/10.1016/j.contraception.2010.06.005>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05). *Welfare Policy for Unmarried mother and father*. Retrieved November 1, 2011, from <http://www.mogef.go.kr>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1). *Statistics of using the woman refuge* (by Province and city). Retrieved December 1, 2011, from <http://www.mogef.go.kr>
- Park, S. H. (2000a). *A study on an unwed mother's keeping a child*.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Park, S. H. (2000b). Emergency contraception from the viewpoint of prevention for unintended pregnancy. *Journal of Reproductive Medicine and Population*, 13, 55-59.
- Park, S. H., & Han, J. H. (2002). Effectiveness and side effects of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28, 121-126.
- Rocca, C. H., Schwarz, E. B., Stewart, F. H., Darney, P. D., Raine, T. R., & Harper, C. C. (2007). Beyond access: Acceptability, use nonuse of emergency contraception among young women.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196, 29. e1-6. <http://dx.doi.org/10.1016/j.ajog.2006.08.024>

### 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Unmarried mothers want to have more information about various contraceptive methods including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 **What this paper adds**

There wer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of unmarried mothers.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 policy**

This study suggests that unmarried women should be better informed about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by experts of sex education including nurses, and reassured about their safety for use in case of need.